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한국의 생애과정과 주관적 웰빙

한 준 (연세대학교)

- 생애과정에 걸친 주관적 웰빙의 변화가 U자 형이라는 기대와 달리 한국의 연령대별 패턴은 L자 형에 가깝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제거하면 U자형 패턴이 나타난다.
- 2000년대 이후 시기별로 주관적 웰빙의 생애과정 패턴을 비교하면 L자형 패턴에 큰 변화는 없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아진다.
- 한국의 생애과정에 걸친 L자형 주관적 웰빙 패턴은 동유럽 국가와 유사하며,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 서유럽과 미국의 U자형과 대비된다.

주관적 웰빙은 현재 삶에 대한 보람과 만족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포괄한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타고난 성격적 특성과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주관적 웰빙은 개인의 일생에 걸쳐서도 변화를 보이는데, 해외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은 낙관적이며 즐거운 청년기에 높고, 이후 결혼과 양육, 사회생활의 의무와 책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중년기에는 낮아졌다가, 이에서 벗어난 은퇴 후의 노년기에 다시 높아지는 U자형 패턴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서구의 일반적 경우이고 한국인이 경험하는 주관적 웰빙의 연령대별 패턴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경험적 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의 어려움과 노년층의 불안정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이 얼마나 그 영향을 받을지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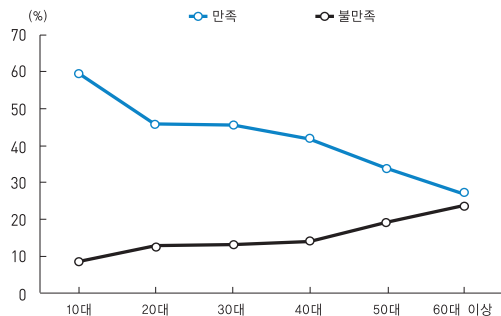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주관적 웰빙을 측정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조사자료들을 활용해 각 자료별로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국제비교자료를 활용해 한국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패턴을 비교한다.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의 차이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는 2009년부터 삶의 만족도를 ‘매우 만족한다’에서 ‘매우 불만족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있다. [그림 XI-20]에 제시된 2019년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패턴을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은 10대가 가장 높아서 59.3%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60대 이상에서는 27.0%에 불과해 10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약간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의 합)은 10대가 8.9%로 가장 낮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져 60대 이상에서는 23.7%이다. 연령대별로 비교하

면 10대와 20대 사이에 만족도의 큰 하락(59.3%→45.6%)이 있으며,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지속적인 만족도 하락(41.9%→33.6%→27.0%)이 나타난다. 이상의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일관되게 삶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XI-20]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사회조사, 2019



주: 1) 분석대상은 만 13세 이상 인구임.

2) 설문문항은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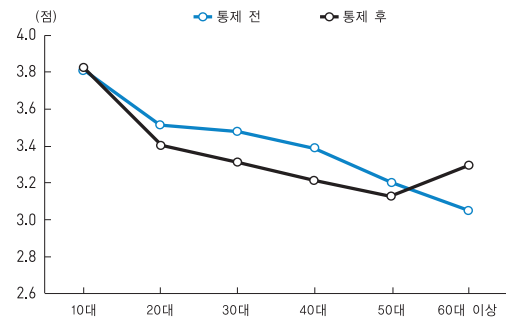
3) ‘만족’은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를 합한 응답률이고,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9.

2019년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연령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삶의 만족도 하락이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학력과 가구소득을 통제한 뒤의 연령대별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아닌 ‘매우 만족한다’를 5점, ‘매우 불만족한다’를 1점으로 한 척도 값 평균을 분석하였다.

[그림 XI-21]을 보면 학력과 가구소득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연령대별 만족도 평균은 앞서 연령대별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하지만 학력과 가구소득을 통제한 뒤에 연령대별 만족도 평균을 비교하면 50대까지는 일관되게 만족도가 하락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서 40대보다도 높은 만족도 값을 보인다. 이로부터 우리는 60대 이상에서 삶의 만족을 낮추는 요인이 사회경제적 열악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면 20~50대에서는 만족도가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이전보다 더 낮아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XI-21]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후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비교: 사회조사, 2019



주: 1) 분석대상은 만 13세 이상 인구임.

2) 설문문항은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평균 점수는 ‘매우 불만족한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1~5점을 부여하여 산출함.

4)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후 평균 점수는 ‘학력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임.

5) 통제 전후 평균 점수 산출 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19.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는 OECD가 권고하는 주관적 웰빙 측정의 세 차원인 삶의 만족, 삶의 의미와 가치(유데모니아), 그리고 긍정 및 부정적 정서 경험을 모두 조사한다. 다만 「사회조사」에서 사용하는 5점 척도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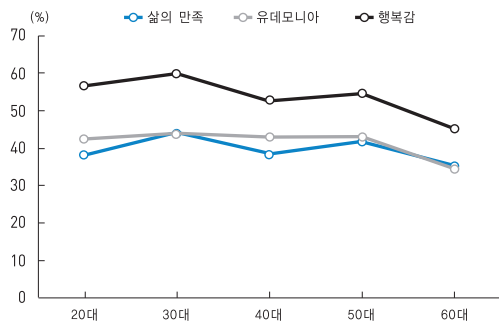
[그림 XI-22]는 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얻은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변화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사회조사」의 결과에 비해 주관적 웰빙의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삶의 만족이나 유데모니아, 행복감 모두 50대에서 60대 사이에서 하

락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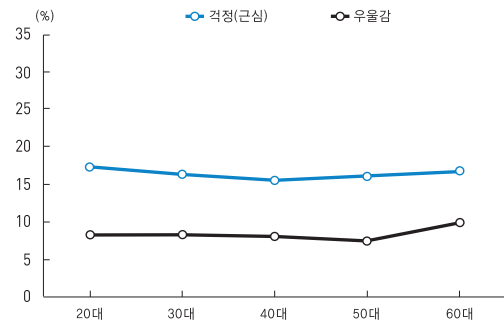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7-10점) 비율이 50대(41.7%)에 비해 60대(35.0%)가 6.8%p 낮다. 유데모니아의 경우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응답(7-10점) 비율이 50대(43.0%)에 비해 60대(34.6%)에서 8.4%p 낮다. 긍정적 정서 경험인 행복감을 느낀다는 응답(7-10점) 비율도 50대(54.4%)에 비해 60대(45.1%)가 낮다. 부정적 정서 경험인 걱정(근심), 우울감을 느낀다는 응답(7-10점) 비율을 보면, 걱정(근심)의 경우 연령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울감의 경우 50대(7.4%)에 비해 60대(9.8%)가 2.4%p 높다.

[그림 XI-22]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수준: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

1) 삶의 만족, 유데모니아, 행복감



2) 걱정(근심), 우울감



주: 1) 분석대상은 만 19-69세 인구임. 20대에는 19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2) '삶의 만족'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3) '유데모니아'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가치 없다'부터 '매우 가치 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4) '행복감'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부터 '매우 행복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5) '걱정(근심)'은 "어제 어느 정도 걱정(근심)을 하셨습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하지 않았다'부터 '매우 많이 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6) '우울감'은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부터 '매우 우울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7) 각 통계치는 7-10점까지를 긍정 응답으로 간주하고, 이를 합한 응답률임.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조사」, 2019.

한편 50대에서 60대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주관적 웰빙이 낮아지는 패턴이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바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력과 가구소득을 통제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를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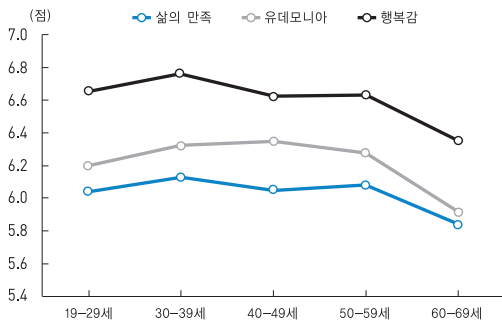
[그림 XI-23]을 보면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뒤에도 주관적 웰빙이 60대에서 낮아지는 패턴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변화가 보인다. 긍정적 정서 경험으로서 행복감과 삶의 의미와 가치로서 유데미니아의 경우 60대에서 하락하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삶의 만족은 50대 이후의 변화 방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지 않지만, 주관적 웰빙 수준의 하락이 아

닌 정체가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서 걱정(근심)과 우울감은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어서 결과로 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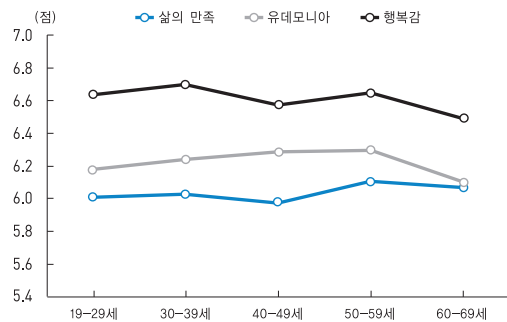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2015년 정규 조사문항 외에 부가문항으로 주관적 웰빙 측정 문항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11점 척도(0-10점)로 삶의 만족, 유데미니아, 삶의 만족을 달리 측정한 삶의 사다리, 그리고 행복감 등 네 항목을 조사했다. 이 조사자료를 이용해서 주관적 웰빙 수준 평균 점수를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가 [그림 XI-24-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XI-23]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후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 비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9

1)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



2)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후



주: 1) 분석대상은 만 19-69세 인구임.

2) '삶의 만족'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3) '유데미니아'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가치 없다'부터 '매우 가치 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4) '행복감'은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부터 '매우 행복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5) 평균 점수는 해당 문항에 가장 부정적인 응답부터 가장 긍정적인 응답까지 0-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함.

6)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후 평균 점수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학력수준'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임.

7) 통제 전후 평균 점수 산출 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음.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조사」, 원자료, 2019.

삶의 만족과 유데미니아, 행복감의 수준을 비교하면 앞선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데미니아가 중간이며,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삶의 사다리도 삶의 만족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수준을 비교하면, 주관적 웰빙이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패턴은 앞에서 살펴본 조사들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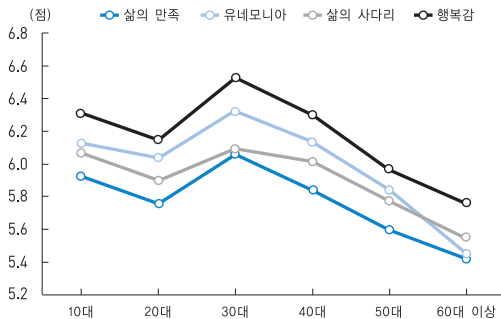
주관적 웰빙 수준이 10대에서 20대 사이에 다소 낮아지고, 다시 30대에서 높아져 30대가 가

장 높은 주관적 웰빙 수준을 보인다. 40대 이후로는 일관되게 주관적 웰빙이 하락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주관적 웰빙이 낮은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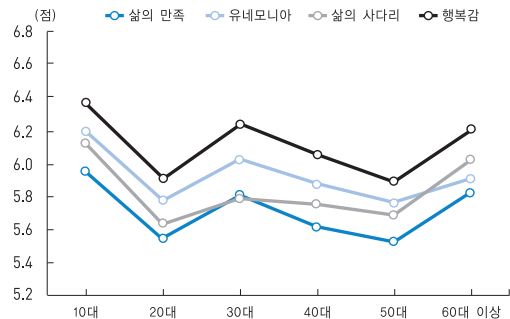
[그림 XI-24-2]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 한 뒤에 주관적 웰빙의 연령대별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준다. 우선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주관적 웰빙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아지는 패턴은 마찬가지로이지만 그 정도는 약화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

[그림 XI-24]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후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평균 점수 비교: 한국노동패널조사, 2015

1)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전



2)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후



주: 1) 분석대상은 만 15세 이상 인구임.

- 2) '삶의 만족'은 "전반적으로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완전히 만족한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 3) '유데미니아'는 "하시는 일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있다고 느끼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가치가 없다'부터 '매우 가치가 있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 4) '삶의 사다리'는 "밑(0)에서 꼭대기(10)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맨 꼭대기(10)는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맨 아래 (0)은 귀하의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귀하는 지금 현재 사다리에서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최악의 상태'부터 '최선의 상태'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 5) '행복감'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행복하지 않다'부터 '매우 행복하다'까지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음.
- 6) 평균 점수는 해당 문항에 가장 부정적인 응답부터 가장 긍정적인 응답까지 0-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함.
- 7) 사회경제적 요인 통제 후 평균 점수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학력수준'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임.
- 8) 통제 전후 평균 점수 산출 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음.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15.

50대와 60대 사이에서 주관적 웰빙이 낮아지는 패턴은 통제 후에 역전되어 주관적 웰빙 측정치들이 완만하게나마 상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차이의 변화 추이

다음으로 「사회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지난 20년간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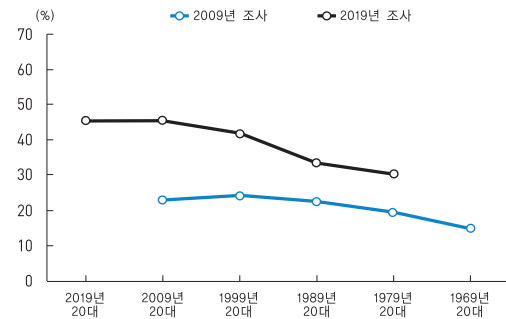
「사회조사」에서는 2009년부터 삶의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해 왔다. 따라서 2009년과 2019년 자료를 활용해 10세 간격의 연령집단별 패턴을 비교하면 시대의 효과와 생애과정의 효과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XI-25]에는 2009년과 2019년에 조사된 2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2009년과 2019년 조사 모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주관적 웰빙이 낮아지는 패턴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2009년의 경우 20대에서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0%인 반면 60대에서는 14.9%이다. 2019년에는 그 차이가 더욱 커져서 20대에서 만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45.6%인 반면 60대에서는 30.3%이다.

지난 10년 동안 주관적 웰빙의 연령대별 차이는 커졌지만 연령 상승에 따른 주관적 웰빙의 일관된 감소 패턴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는 2009년 각 연령대의 주관적 웰빙을 2019년 10세 위의 연령대와 비교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주관적 웰빙이 높아졌으며 젊은 연령대일수록 그 상승폭이 더 컸다. 아마도 2009년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어려운 상황이라 주관적 웰빙이 낮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상승의 차이는 상당해서 2009년 50대가 2019년 60대가 되면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단지 10%p 정도 상승한 반면, 2009년 20대는 2019년 30대가 되면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20%p 넘게 높아졌다.

[그림 XI-25]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패턴의 변화 추이: 사회조사, 2009, 2019



주: 1) 시계열 비교를 위해 분석대상을 만 20~69세로 한정하였음.
 2) 설문문항은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응답률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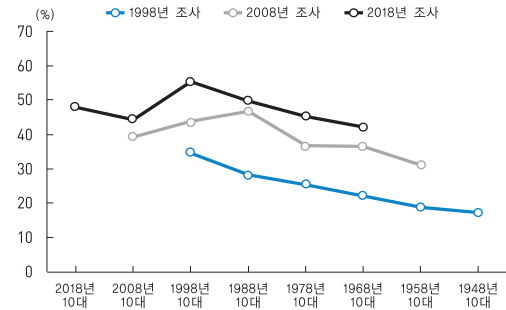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종단적 패널조사이다. 따라서 중간에 일부 탈락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사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 관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2015년의 부가조사 외에도 「한국노

동패널조사는 매년 5점 척도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첫 조사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지난 20년간의 10대에서 60대에 걸친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XI-26]은 1998년, 2008년, 2018년 등 10년 간격으로 연령대별 삶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30대 이후 삶의 만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은 20년간 변함이 없지만 10대와 20대의 경우는 변화를 볼 수 있다. 1998년 연령 상승에 따른 일관된 하락 패턴이 2008년에는 $\cap$ 자형 패턴으로 바뀌었고 2018년에는 10대와 20대 사이에 하락이 나타났다가 이후 연령대에서는 다시 $\cap$ 자형 패턴이 나타난다. 이 변화에서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20대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삶의 만족이 낮아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삶의 만족 수준 변화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이 가장 낮았다. 2008년에는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만족도 상승이 큰 것은 1998년 20대에서 2008년 30대가 된 집단으로 거의 20%p에 가까운 비율이 상승하였다. 2008년에 비해 2018년에도 삶의 만족이 개선되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다. 삶의 만족 수준이 가장 크게 상승한 집단은 이 경우에도 2008년 20대에서 2018년 30대가 된 집단으로 10%p 조금 넘게 상승하였다. 반면 2008년 30대에서 2018년 40대가 된 집단(3.0%p 상승)과 2008년 50대에서 2018년 60대가 된 집단(5.6%p 상승)에서는 삶의 만족도 상승이 미미하였다.

[그림 XI-26]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패턴의 변화 추이: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 2008, 2018



주: 1) 시계열 비교를 위해 분석대상을 만 15-69세로 한정하였음.

2) 설문문항은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매우 만족스럽다', '약간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등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만족(매우 만족+약간 만족)' 응답률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령대별 주관적 웰빙 차이의 국제비교

[그림 XI-27]은 전 세계 60여 개 국가가 참여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2010년대 초반(2011-2014년) 자료를 이용해 국가별로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은 패턴이 비슷한 국가들을 4가지 유형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한국은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등과 함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이 낮아지는 유형에 속한다. 대만은 30대에서 40대 사이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40대와 50대 사이에 삶의 만족 상승이 있지만 대체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와 반대로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이 상승하는 유형에는 스웨덴, 호주,

그리고 홍콩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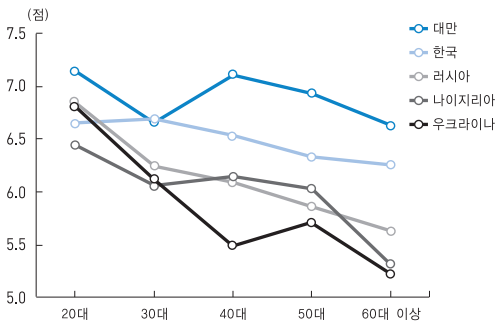
청년에서 중년 사이에 삶의 만족이 낮아졌다가 다시 노년으로 가면서 높아지는 U자형 국가들을 살펴보면, 먼저 U자형(1)은 40대에서 가장 낮은 삶의 만족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U자형(2)는 50대에서 가장 낮은 삶의 만족 수준을 보이는 국가들로 독일, 중국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 페루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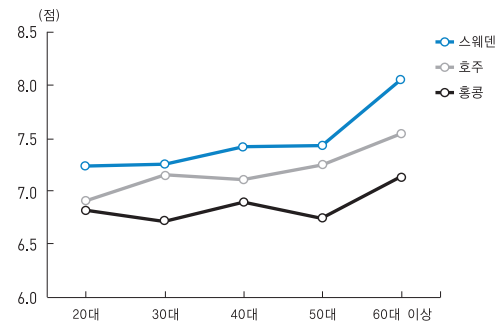
이처럼 국가별로 연령대별 삶의 만족 패턴이 상이하다는 것은 생애과정에 따른 삶의 만족 변화가 생물학적 요인 못지않게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컨대 노후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는 노년의 삶의 질이 높다는 가족 복지가 잘 갖춰진 스웨

[그림 XI-27]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2010년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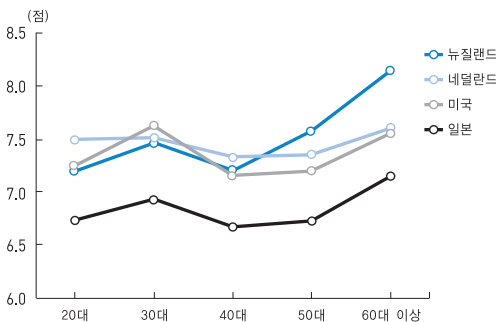
1) 하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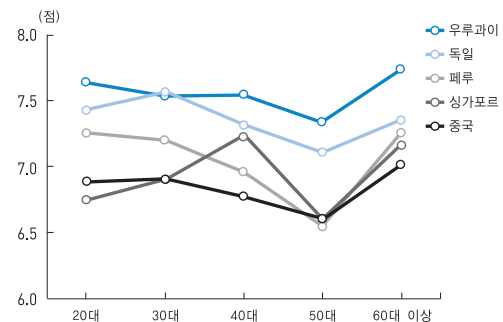
2) 상승형



3) U자형(1)



4) U자형(2)



주: 1) 비교를 위해 분석대상을 만 20세 이상 인구로 한정하였음.

2) 설문문항은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선생님께서 현재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전혀 만족하지 않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10점 척도(1-10점)로 조사되었음.

3) 통계치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1-1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Inglehart, R., C. Haerpfer, A. Moreno, C. Welzel, K. Kizilova, J. Diez-Medrano,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t al. (eds.), 2014. *World Values Survey: Round Six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Madrid: JD Systems Institute.

덴 같은 국가에서는 중년의 하락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같은 동아시아에 속하지만, 한국과 대만은 하락형에, 홍콩은 상승형에,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U자형에 각각 속한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모두 대체로 비

슷한 수준의 북미, 남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삶의 만족 수준을 보이지만, 아프리카나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삶의 만족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연령대별 패턴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배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